

독재는 어떻게 평화를 파괴하는가?

– 우리 시대의 탁월한 정치적 우화, 〈마지막 섬〉

장 현 정

사회학자 / 호밀밭출판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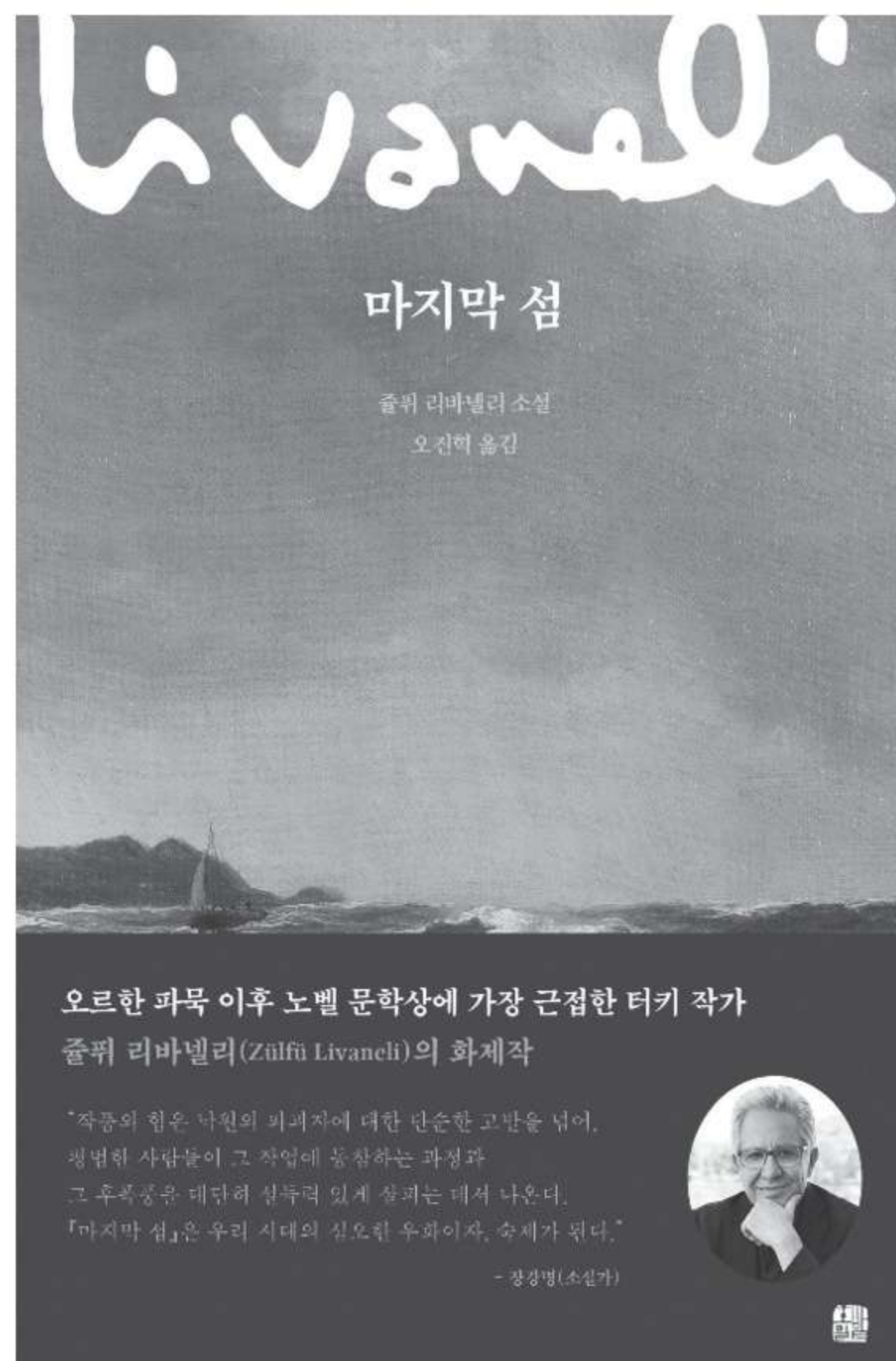
11월 마지막 날, 터키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소설가인 줄뤼 리바넬리의 작품 『마지막 섬』을 세상에 내보냈다. 오래전, 처음 이 원고를 검토할 때만 해도 우리 시대의 정치적 권위주의에 대한 중요한 고전이 되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이처럼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과 정치적 상황에 잘 맞아떨어질 줄은 몰랐다.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소설가 장강명은 이렇게 말한다.

“낙원과도 같았던 작은 공동체에 탐욕스러운 외부인이 들어오고, 마을은 점점 망가져 마침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2008년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독재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쓴 작품이라고 하지만 2022년 한국 독자들에게도

울림이 크다. 이 소설 속 ‘전직 대통령’이 가리키는 바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권위주의적 정치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선동가, 악덕 대기업, 자본주의, 혹은 문명 그 자체로 해석해도 자연스럽게 읽힌다. 작품의 힘은 낙원의 파괴자에 대한 단순한 고발을 넘어, 평범한 사람들이 그 작업에 동참하는 과정과 그 후폭풍을 대단히 설득력 있게 살피는 데서 나온다. 왜 우리는 번번이 그런 권위에 굴복하는가. 왜 그런 선동에, 유혹에 휩쓸리는가. 왜 우리는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될까. 그렇게 『마지막 섬』은 우리 시대의 심오한 우화이자, 숙제가 된다. 분량은 짧지만 주제는 묵직하고, 생각할 거리는 풍성한 책.”

소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계절 내내 온화하고, 밤이 되면 사람의 낮을 빼놓는 재스민 향기에 뒤덮이는 외딴섬. 이곳은 숲속에 자리한 넓고 오래된 집과 함께 세월에 내맡겨진, 자급자족이 가능한 독



립된 세상이었다. 그곳은 마지막 섬이자 마지막 은신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자투리땅이었다.

어느 날,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평화로운 섬에 탐욕스러운 외부인이 들어온다. 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 시절 공식 연설마다, 국론분열과 벼랑 끝까지 내몰린 국내 상황을 외부세력과 적성 국가의 공작 탓으로 돌리곤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이 일으킨 쿠데타가 국민의 단합과 단결을 확보하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곤 했다. 그는 장기집권 끝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남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이 섬에 오게 된 것이었다.

전 대통령이 섬에 정착한 후, 여러 사건이 발생하며 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섬 주민들에게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주던 커다란 나무들이 잘려 나간다. 무질서와 혼돈, 혼란에서 벗어나 문명 생활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나무가 사라진 후 전 대통령의 손녀는 과자를 먹다가 갈매기의 공격을 받고 팔을 크게 다친다. 이후 전 대통령은 갈매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많은 주민이 그의 계획에 적극 동조한다. 그렇게 평화로웠던 마을에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갈매기와의 전쟁을 이유로 평화롭게 살던 섬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권위주의가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민주주의라는 가면 뒤에

숨은 독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작가 줄뤼 리바넬리는 터키 지식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이슬람의 정치 개입과 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반대해 왔으며 오르한 파묵 이후 터키에서 두 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거론되는 작가이기도 하다. 1946년에 터키 콘야에서 태어난 그는 1971년에 터키의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다 세 차례 구속되었고 사상범으로 군 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이후 11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다. 1973년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고, 1978년에는 첫 소설을 펴냈으며 이후 문학,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찬사를 받으며 국내외 30개 이상의 수상 기록을 갖고 있다. 2008년에 터키에서 출간된 후 4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 이 작품 『마지막 섬』은 그의 작품 중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소설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올해(2022년) 6월 번역 출간되었다.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 모두 34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리바넬리는 세계 문화와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1996년 파리 유네스코로부터 명예 대사로 위촉되었으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자문 역을 역임했다.

특히 이 작품을 번역한 오진혁이 부산 출생이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1970년 부산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터키 국

립 하제테페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주 터키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전문가로 12년 동안 근무했다. 터키어를 직역할 수 있는 번역가가 거의 없는 한국 현실에서 이토록 유려하고도 간결한 번역으로 중요한 터키 문학을 소개할 수 있는 번역가가 부산에 있다는 점이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지금 전 세계는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고의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며 공존과 공감의 정치를 질식하게 만드는 극우적 흐름이 거세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당선되었고 불과 얼마 전까지 브라질의 보우소나루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 같은 지도자들이 노골적인 극우 행보를 보이며 사람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겼다.

한국 사회 역시 지난 20대 대선을 거치며 한쪽에서는 극렬한 정치 과몰입이, 또 한쪽에서는 정치 혐오와 무관심이 팽배해졌다. 그러나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를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면 공동체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맹목적인 과몰입도, 반대로 무책임한 무관심도 모두 권위주의를 낳고, 그 권위주의는 다시 독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일상과 권리를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경계하고 각자의 위

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기에 이 작품 『마지막 섬』과 함께 깊이 고민해보길 추천하고 싶다. **인문세상**